

광주 하수슬러지 시설 부산물 처리 고심

온도·수분 기준 못맞춰 중부발전측서 반입정지 예고

市, 분쇄기·냉각장치 등 추가 설치 시설 보장 나서기로

광주환경공단이 관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내놓은 부산물이 수거 업체 기준을 맞추지 못해 반입 정지까지 예고되는 등 부실한 처리 시스템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이 수역원을 들여 설비 보강에 나섰지만 애초 설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치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환경공단이 관리하는 하수슬러지시설의 부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3억6000만원을 들여 시설 보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광주지역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보조연료로 사용해온 한국중부발전측이 온도와 습도가 부적합해 시설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중부발전 측은 광주 하수슬러지시설에서 반입된 부산물의 경우 온도와 수분 함량이 높아 자칫 발전소 시설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반입 정지를 예고하는 등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 고려시멘트, 2015년 중부발전 저장소 등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광주 하수슬러지시설 부산물의 높은 온도

가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하수슬러지시설 부산물 온도(45~50도)가 다른 자치단체 부산물 온도(25~30도)보다 높은 상황에서 미세한 입자(10mm 이하) 크기와 함수율(10% 이하) 등 조건이 맞물릴 경우 자칫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환경공단 측은 중부발전측 요구를 맞추기 위해 분쇄기(2억1800만원), 흡입송풍기(6200만원), 냉각장치(4000만원), 반출실 밀폐시설(4000만원)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환경공단은 건조기~냉각 컨베이어~이송컨베이어~저장조~분쇄기~상차 과정으로 진행되는 공정에 이르면 시설 안에 추가시설을 설치, 품질을 강화

할 방침이다. 환경공단 안팎에서는 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건설했음에도 설계 당시 부산물 입자 크기, 온도 등을 설계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애초 설계 과정에서 치밀한 분석을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6월 초 중부발전 측에서 갑작스레 반입 중단 예정을 통보해와 긴급히 출장을 다녀오는 등 협의를 거쳐 대책을 이미 수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슬러지시설은 지난 2012년 1월 준공된 뒤 광주 1, 2 하수처리장과 효천처리장에서 운반된 찌꺼기(300여t)를 건조·분쇄해 40~60t으로 압축한 뒤 한국중부발전(충남보령)과 고려시멘트(장성)에 각각 70%, 30%를 제공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15일 오후 신안군 자은면 금포마을 양파밭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양파 20kg 한 마당 가격은 1만3000원~1만5000원이다.

신안 양파 수확 한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와 광주시 동구 자산유원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 방문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지는 취지로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무등산 훼손 논란 등으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광주시 동구는 자산유원지와 무등산 정상 구간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동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법적 타당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구는 지난 3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에 보낸 문서를 통해, 자산유원지(향로봉)~중머리재~정상부를 잇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또 ‘술술’

광주 동구, 문화전당 개관 맞춰 관광객 불거리 제공 검토

정상~자산유원지와 연결... 훼손 논란 속 현실화 미지수

는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은 케이블카의 경우 자연공원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공익시설’로, (설치를 위해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무등산국립공원공원에 계획에 반영해야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통보했다.

동구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예상하면 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는 데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방문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에게도 지역 명산인 무등산 정상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정책 추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악산국립공원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가 수년째 지역사회 반발 등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됐던 것을 감안하면, 무등산국립공

원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미지수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주장은 지난 2013년과 2009년 전남도와 광주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때 움직임이 일었으나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환경단체 측은 당시 “케이블카 설치하는 무등산 파괴를 반드시 수반한다. 또 무등산은 우리 세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한다”며 반발했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주민 민원제기에 따른 케이블카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일 뿐 추진 여부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설악산 등 다른 국립공원의 경우를 살펴보다라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 해질 19:49 | 달출몰 05:55 | 달몰림 20:13

소나기 피하세요
동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 있었다. 예상 강수량 5~20mm.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9/29	보성	구름많음	19/24
목포	구름많음	18/26	순천	구름많음	20/26
여수	구름많음	20/23	영광	구름많음	18/29
나주	구름많음	17/29	진도	구름많음	17/25
완도	구름많음	18/24	진주	구름많음	18/29
구례	구름많음	19/29	군산	구름많음	18/25
강진	구름많음	18/26	남원	구름많음	18/28
해남	구름많음	18/25	홍산도	구름많음	16/22
장성	구름많음	17/28			

◇바다 날씨

지역	방향	파고(m)			
		오전	오후		
서해	남부	북동~동	0.5	동~남동	0.5~1.0
	남부	북동~동	0.5~1.0	동~남동	0.5~1.5
남해	남부	북동~동	0.5~1.0	동~남동	0.5~1.5
	남부	북동~동	1.0~1.5	동~남동	1.0~2.0
제주	서부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서부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생활지수

- 식중독: 경고
- 운동: 40
- 빨래: 50

◇주간 날씨

날짜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날씨	☀	☀	☁	☀	☀	☀	☀
강수량	19/31	20/29	19/27	19/29	19/29	19/29	19/30

건물 4~5층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건물 4~5층에 어린이집을 만들 때에는 연면적이 600㎡ 미만이어도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 결과가 16일 나왔다. 법제처에 따르면 A씨는 연면적 597.15㎡인 건물 4층에 어린이집을 열기로 했다. 그렇지만, 연면적이 600㎡ 이하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령이 충돌한다고 보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문의했다.

한 법을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4층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의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소방시설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4층 또는 5층에 연면적 600㎡ 미만인 어린이집을 만들 때에도, 건물 전체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교도소 40대 수형자 숨져 의경, 추첨으로 뽑는다

가슴통증 호소 병원에서 치료중

광주교도소에서 40대 수형자가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6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40대 수형자 A씨가 지난 11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교도소내 화장실에서 나오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 통증을 호소, 의무관 진료를 거쳐 교도소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긴급조영술·스텐트 삽입술 등 치료중 숨졌다. 교도소 측은 검찰 지휘를 받아 다음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대한 부검을 실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기존 면접이 폐지되고 추첨이 도입된다. 또 적성시험에서 지식 위주의 능력검사가 없어지고 인성검사가 강화된다. 의무경찰 합격여부가 사실상 추첨에서 판가름이 남에 따라 이른바 ‘의경 고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셈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무경찰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선안은 이 중 면접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했다.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론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